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8054
----------	------

제안연월일 : 2010. 4. 2.

제안자 :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2010년 3월 30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 또는 표기한 소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아울러 즉각 사회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 또는 표기한 소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엄중히 규탄함과 아울러 즉각 사회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 또는 표기한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은 국제법 질서에 위반되고,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근본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직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일본국 정부가 교과서 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역사를 오만하게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동반자관계와 우호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우려하며, 일체의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 또는 표기한 사회교과서에 대하여 검정승인한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발상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아울러 검정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아시아 각국과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제안이유

2010년 3월 30일 일본국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기술 또

는 표기한 소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한 조치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심각한 주권침해행위로서, 주권자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주권침해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은 동아시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일본국 정부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2010년에 군국주의적 만행을 반성하고 사죄함으로써 동반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의 역사적 진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퇴행적 행위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발달단계상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독도에 대한 그릇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왜곡된 역사관을 갖게 하여 미래의 주역인 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국이 동아시아에서 고립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자멸적 행위가 될 것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일간 협력관계를 통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현명하고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일본국 정부가 양국 간 신뢰를 만회하고 우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왜곡 기술 또는 표기한 사회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일본국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